

<함께 나누는 말씀>

“ 종의 집이 영원히 복을 받게 하소서.”(29절)

문장은 다윗의 기도입니다. 그러나 이 기도는 다윗이 먼저 구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네 집과 네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전되고 네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16절) 하시며 다윗에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다윗은 바로 그 언약에 힘입어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사오니, 이제 청하건대”(29절) 하며 말합니다. 아무런 자격도 공로도 없는 이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주권적인 사랑을 베푸셨기에, 다윗은 그 사랑에 감격하며 감사하고, 영원토록 주의 백성으로 살기를 결단하는 심정으로 기도하고 있습니다.

1. 주의 종의 집 되기

하나님께서 왜 이 다윗의 집을 택하여 복을 약속하셨을까요? 이 약속을 받기 전 장면은 이러합니다. 다윗은 여호와와 언약궤를 성전으로 모셔옵니다(6장). 그 때에 다윗은 여호와 앞에서 힘을 다하여 기뻐 춤을 춥니다. 직접 궤를 짊어메고 들어갑니다. 미리 정성껏 준비한 장막 성소에 궤를 모시고 번제와 화목제를 올려드립니다. 이렇게 다윗은 스스로 왕의 영광을 모두 내려놓았습니다. 오직 주님이 우선이었고, 오직 주님이 중심이었고, 주님만으로 기뻐했습니다. 주님께만 영광을 돌려드렸습니다.

이어서 ‘나는 이렇게 좋은 백향목 궁전에 사는데, 어찌 하나님의 궤를 장막에 계속 모셔둘 수 있겠는가.’ 안타까워하며, 하나님께서 거하실 성전을 지을 소망을 품습니다(7장).

그리고서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니, “주님, 제가 무엇이기에 이토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사랑해주시나이까. 이 백성이 무엇이기에 우리가 감히 구하기도 전에 주의 백성 삼아주시고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주시고 영원히 이 백성의 하나님이 되어 주시나이까.” 하며 모든 것이 내 공로가 아니요 주님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바로 이러한 모습이 중요합니다. 내가 내 삶의 주인이 아니요,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 삶의 모습입니다. 이렇게 그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 이들을 하나님께서는 주의 종의 집으로 택하사 약속하십니다.

2. 복이란?

그럼 주의 종의 집에 약속하신 ‘복’이란 과연 무엇일까요? 다윗에게 땅을 약속하셨습니다. 주변국의 위협으로부터 지켜주실 것도 약속하셨습니다. 장수와 후손의 복도 약속하셨습니다. 대대로 그 가문과 왕국을 견고케 하실 것도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약속은 이것입니다. “네 집과 네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전되고”(16절). 다윗도 고백합니다. “종의 집에 복을 주사, 주 앞에 영원히 있게 하옵소서”(29절). 즉 가장 중요한 약속, 가장 중요한 복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원히 있는 것, 하나님께서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내 인생에, 우리 가정에 가장 중요한 ‘복’인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주님께서 기뻐 택하신 ‘주의 종의 가정’인 줄로 믿습니다. 다윗의 기도가, 한가위 명절을 맞아 한자리에 모여 예배하는 여러분 가정의 기도가 되길 소망합니다.

“ 종의 집이 영원히 복을 받게 하소서. 아멘.”



추석 가정예배

2020.10.1.(木)

한국기독교신앙포럼 신암교회

2020년 추석에 드리는 감사예배

예식사 인 도 자

후손을 통해 생명과 역사를 이어가게 하시고
올해도 우리 가족과 동행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예배를 드립니다.

신앙고백 사도신경 다 같 이

전능하신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 송 301 장 다 같 이

1.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랴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피 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행통하게 하시네
2. 몸도 맘도 연약하나 새 힘 받아 살았네
물 붓듯이 부으시는 주의 은혜 족하다
사랑 없는 거리애나 험한 산길 헤맬 때
주의 손을 굳게 잡고 찬송하며 가리라
3. 주님 다시 뵈올 날이 날로날로 다가와
무거운 짐 주께 맡겨 벗을 날도 멀잖네
나를 위해 예배하신 고향집에 돌아가
아버지의 품안에서 영원토록 살리라

공동기도 다 같 이

인자하신 하나님.
어김없이 맺게하신 결실 앞에 주님의 풍성한 은혜를 마주합니다.
어느 것 하나 당연한 것이 없음에도,
당연한 듯이 누렸던 우리들을 돌아봅니다.
모든 것이 아버지의 은총이요 사랑이었음을 고백합니다.
어려운 상황 가운데에서도 안위하시고 인도하신 주님의 손길에 감사합니다.
그 은혜를 형제자매와 기꺼이 나누는 주의 가정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성경낭독 사무엘하 7:27~29 말 은 이

- 27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어 주의 종의 귀를 여시고
이르시기를 내가 너를 위하여 집을 세우리라 하였으므로
주의 종인 이 기도로 주께 간구할 마음이 생겼나이다
- 28 주 여호와여 오직 주는 하나님이시며 주의 말씀들이 참되시니이다
주께서 이 좋은 것을 주의 종에게 말씀하셨사오니
- 29 이제 청하건대 종의 집에 복을 주사 주 앞에 영원히 있게 하옵소서
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사오니
주의 종의 집이 영원히 복을 받게 하옵소서 하니라

말 씀 「 주의 종의 집이 영원히 복을 받게 하옵소서 」 말 은 이
(순서지 4면 참조)

시간 및 감사 나눔 다 같 이

조상들의 역사와 신앙일화에 대한 회고를 나누거나
한 해를 지나며 감사한 일들을 돌아가며 짧게 이야기합니다.

찬 송 559 장 다 같 이

1. 사철에 봄바람 불어있고 하나님 아버지 모셨으니
믿음의 반석도 든든하다 우리집 즐거운 동산이라
2. 어버이 우리를 고이시고 동기들 사랑에 뭉쳐있고
기쁨과 설움도 같이하니 한간의 초가도 천국이라
3. 아침과 저녁에 수고하여 다같이 일하는 온식구가
한상에 둘러서 먹고마셔 여기가 우리의 낙원이라
후렴)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주의기도 다 같 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애찬과 교제 가족들의 사랑을 나누는 식탁